

<b>인터넷총국 (홈페이지 http://data.rutc.com)</b> 후원: (국민은행) 856701-04-233309 (사)세계복음화전도협회 인터넷총국	
<b>분류</b>	구역공과- 2020년 02과
<b>제목</b>	<b>(언약의 증인1) 요셉의 언약의 여정</b>
<b>성경</b>	<b>창세기 45:5</b>
<b>일시/장소</b>	2020년 1월 12일, 임마누엘 서울교회
<b>강사</b>	류광수 목사 (정리: 차동호 목사)
<b>주제어</b>	

♣ 성경말씀 (창세기 45:5)

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

♣ 구역공과 자료 ♣

♣ 서론- 이스라엘 7재앙의 이유가 무엇인가?

- 1) 잃어버린 복음 → 창3장 시대와 흑암 재앙
- 2) 잃어버린 진도/선교 → 창6장 시대와 우상숭배 재앙
- 3) 잃어버린 후대 → 창11장 시대와 미래 재앙

1. 요셉이 붙잡은 언약

- 1) 창37:1-11, 평생 붙잡은 애굽(세계)복음화의 꿈
- 2) 창39:2-6, 21-23, 언제나 어디서든 24 임마누엘의 누림
- 3) 창42:9, 창45:5 창50:19-21, 끝까지 24 언약 누림
- 4) 창50:25, 영원한 언약(가나안 땅 언약) 누림
  - ▶ “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만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라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”

2. 요셉이 누린 언약의 여정

- 1) 창35:18, 어린시절 어머니의 죽음은 → 참된 임마누엘의 시작
- 2) 창37:1-11, 어릴 때 각인된 세계복음화의 꿈은 → 언약의 여정의 시작
- 3) 창37:12-36,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사건은 → 애굽 복음화의 시작
- 4) 창39:1-6, 보디발 집에서의 노예생활은 → 복음 경제 회복의 시작
- 5) 창39:7-40:23,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사건은 → 왕앞에 서는 준비된 만남의 시작
- 6) 창41:1-57, 바로왕 앞에서 꿈을 해석하고 총리된 사건은 → 애굽 복음화의 증거
- 7) 창45:1-5, 형들 앞에서의 언약의 신앙고백은 → 참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
- 8) 창50:22-26(25절), 요셉의 죽음은 가나안 땅을 향한 영원한 언약의 여정의 시작

3. 요셉이 남긴 인생 작품 → 왕 앞에서 여호와를 증거한 요셉

- 1) 창41:1-49,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-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랍(38절)
- 2) 창46:1-34,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(애굽 고센땅에 정착한 70명의 사람들)
- 3) 창49:22-26, 대상5:2, 야곱의 요셉에 대한 유언과 축복(장자의 명분을 받은 요셉)
- 4) 히11:21-22(창50:25), 죽음 앞에서 가나안 땅의 언약을 남긴 요셉

♣ 결론 → 내가 남길 인생 작품(3서밋)

- ▶ 우리가 왕이 될 수는 없어도 왕이 될 사람을 키울 수는 있다.
- 1) 영적 서밋 → 영적 대통령, 영적 사령관
- 2) 기능 서밋 → 오직, 유일성, 재창조의 증인
- 3) 문화 서밋 → 복음 문화의 주역

(The end)

♣ 구역공과 - 녹취 자료 ♣

♣ 서론

▶ 이번 주간에는 “요셉의 언약의 여정”이다. 창45:5, 잘 아는 단 어지만 여러분이 새롭게 봐야 된다. 그것을 요셉이 알고 있었고 고백했다. 총리가 되었을 때 말했다. 자기를 팔아먹은,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은 형님들 만나서 한 얘기다. 그 말은 요셉이 언약의 여정을 알고 있었던 말이 된다. 한마디로 요셉이 형들 앞에 언약의 여정을 고백한 것이다. 형님들이 나를 팔 것이 아니라 고백했다. 판 것 맞지만 아니라고 했다. “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. 그것도 여러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고 저를 앞서 보냈습니다.” 어떤 면에서는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본 것이다.

▶ 총리되기 전에 바로 왕 앞에 갔을 때도 그렇게 말했다. 세계 왕인 바로 왕이 요셉에게 물었잖아요? “네가 그렇게 꿈 해석을 잘하느냐?” 물었다. 그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. “저는 할 수 없습니다.”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? “여호와께서 임금님의 꿈을 해석할 것입니다.” 자, 얼마나 신뢰 있는 말입니까? 그렇죠? 여기서 바로 왕이 완전히 마음 문을 연 것이다. “왕이 네가 꿈 해석을 잘하느냐?”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는가? 쉽게 얼른 여러분은 그럴 것이다. “아, 예. 제 전공입니다.” 전공 맞잖아요? 왕이 그래도 뭐 하겠지만 너무 정확한 말을 한 것이다. “임금님의 꿈을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.” 그래서 꿈 꿈을 다 알고 해석하니까 왕이 할 말이 없는 것이다. 그 해석이 국가 정책하고 경제 정책하고 관계있는 해석이란 말이다. 그래서 총리로 세운 것이다. 그때 한 말이다.

▶ 서론- 언약 속에 있으면 된다.

여러분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언약 속에 있으면 된다. 언약 속에 있다는 말은 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?

- 1) 잃어버린 복음 → 창3장 시대와 흑암 재앙
  - 2) 잃어버린 진도/선교 → 창6장 시대와 우상숭배 재앙
  - 3) 잃어버린 후대 → 창11장 시대와 미래 재앙
- 잃어버린 복음, 잃어버린 진도와 선교, 잃어버린 후대 속에 있으면 된다. 그렇잖아요? 언약이 여러 가지이지만 복음 잃어버리다 보니까 진도, 선교는 당연히 잃어버리겠죠. 후대 당연히 잃어버리겠죠. 이거 회복하는 속에 있는 것이다.

▶ 본론- 정확한 언약

자, 그렇다면 어떤 답이 나오니까? 언약 속에 있으면 된다. 그렇다면 언약 속에 있는게 정확한 언약이 이제 중요한 것이다. 자, 복음, 진도, 선교, 후대 이게 맞는데 너무 큰 단어란 말이다. 그렇죠? 내가 정확하게 붙잡기에는 너무 큰 단어다. 그러면 정확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진짜다. 여러분이 노력해서 대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언약 틀린 것이면 그건 실패다. 그렇다면 언약 속에 있어야 되지만 정확한 언약이 더 중요하잖아요?

1. 요셉의 언약 → 자, 그러면 요셉이 붙잡은 언약을 한 번 볼 필요가 있다. 그렇죠?
2. 요셉이 누린 언약의 여정 → 그 다음에 요셉이 누린 이 언약의 여정이 있잖아요? 우리가 차를 타고 가도 길에 맞춰 가듯이 여정이 있던 말이다.
3. 요셉이 남긴 작품 → 요셉이 남긴 작품이 있다.

▶ 이 3가지를 볼 때 정확한 언약이 나오는 것이죠.

여러분 어느 날 메시지 듣다가 결정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진짜로 내가 가진 언약과 언약의 여정과 내가 남겨야 될 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볼 때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된다. 좀 허황되게 보일 수도 있다. 그게 기준이 아니다. 또 뭐 어쩔 때는 조금 불가능하게 보일 때도 있다. 그게 기준이 아니다. 정확하나, 안하나다. 하나님의 언약 진짜 붙잡았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? 올해는 이 결정을 여러분이 꼭 내야 된다. 사업을 하던 목회를 하던 장사를 하던 뭘 하든지 내야 된다. 실업자는 어떻게 합니까? 실업자도 노는 것도 (결정) 내야 된다.

▶ 자, 그러면 요셉의 언약을 한 번 딱 보시라. 어떻게 나와졌는가 하니까 이 복음을 깨달았는데 ①복음화 운동으로 언약으로 딱 잡았다. 이 여정을 보면 이 여정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②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본 것이다. 그리고 남긴 작품은 뭐니까? 이 남긴 작품은 만드시 ③세계복음화하고 연관이 되어졌다.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잡으면 될 것이다. 커도 괜찮고 작아도 괜찮다.

▶ 제가 붙잡은 운동이다.

저는 어떻게 깨달아졌는가 하니까 “아,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제대로 안 누리고 있구나.” 이걸 알았다. 그리고 제가 붙잡은 언약은 “아, 진도, 선교에 대해 잘 모르는구나.” 이 복음을 잘 모르니까 진도, 선교를 잘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. 그래서 내린 결론이 “목사가 문제구나. 그 다음에 중직자구나. 그 다음에는 램넌트다.” 그렇게 본 것이다.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잘 잡게 해주신 것 같다. 그때부터 응답이 오는데 어떻게 왔냐면 사실은 정신없이 왔다. 뭘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왔다. 그래서 은혜 받는데 바

빨 정도로 많이 왔다.  
 저를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2가지를 알게 될 것이다.  
 하나는 “이 사람 별 사람이 아니구나.” 알게 될 것이다. 또 사실 이나가 맞다. 그러나 한 가지를 보게 된다. “아, 하나님께서 전도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.” 그렇게 보게 되었을 것이다. “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.” 하는 답이다.  
 ▶그래서 이 밑에 것은 안 봐도 되지만 우리가 확인을 잠깐 해 볼 필요가 있다.

**1. 요셉이 붙잡은 언약**

- 1) 창37:1-11, 평생 붙잡은 애굽(세계)복음화의 꿈  
 ▶꿈에 나를 만큼 붙잡았다. 꿈을 꿔기 때문이 아니고 꿈에 나를 만큼이었다.
- 2) 창39:2-6, 21-23, 언제나 어디서든 24 임마누엘의 누림  
 ▶이래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24 이 축복 누렸다. 됐죠?
- 3) 창42:9, 창45:5 창50:19-21, 끝까지 24 언약 누림  
 ▶그걸로 끝난 게 아니다. 내용은 여러분 따로 보시고 지금 꼭 붙잡아야 될 것만 얘기하는 것이다. 25가 되고 영원이 되도록 딱 잡았다니까요? 그러면 끝난 것이다.

**2. 요셉이 누린 언약의 여정**

- ▶자, 여정을 보시라. 이 여정은 굉장히 공통적으로 어려운 게 처음에 많았다.
- 1) 창35:18, 어린 시절 어머니의 죽음은→ 참된 임마누엘의 시작  
 ▶어머니가 사망을 했다.
  - 2) 창37:1-11, 어릴 때 각인된 세계복음화의 꿈은→ 언약의 여정의 시작  
 ▶이때 임마누엘이 각인 되었다. “아,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.” 각인이 된 것이다. 어릴 때 벌써 이 언약이 딱 각인 되었다. 자, 어려울 때 아주 중요한 것이 각인 되는 것이다. 그렇지? 실패나, 성공이나?
  - 3) 창37:12-36,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사건은→ 애굽 복음화의 시작  
 ▶노예로 갔을 때 애굽 복음화가 각인 된 것이다.
  - 4) 창39:1-6, 보디발 집에서 노예생활은→ 복음 경제 회복의 시작  
 ▶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경제가 뭔가를 아는 각인이 되었다. 그렇지?
  - 5) 창39:7-40:23,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사건은→ 왕 앞에 서는 준비된 만남의 시작  
 ▶감옥소 갔을 때 정치가 뭔가가 각인이 되어졌다.
  - 6) 창41:1-57, 바로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하고 총리된 사건은→ 애굽 복음화의 증거  
 ▶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애굽 복음화가 각인 된 것이다. 총리가 되었을 때 세계복음화가 각인 된 것이다.  
 ▶이렇게 여정을 간 것이다. 그러면 틀림없다.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여러분 후시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그 시간이 좋은 시간이다. 모세가 미디안 광야 있을 때 왕궁에 있을 때보다 더 좋은 시간이었다.

**3. 요셉이 남긴 인생 작품→ 왕 앞에서 여호와를 증거 한 요셉**

- ▶드디어 됩니까?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기게 되었다.
- 1) 창41:1-49,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-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(38절)  
 ▶왕 앞에 섰을 때 여호와와 신에 감동 된 자라고 했다. 작품 중에 작품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작품이다. 그렇지? 작품 중에 작품이 뭔가 하나까 불신자가 여러분 볼 때 “아,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.” 이렇게 보는 것이다. 이걸 바로 왕이 한 얘기다. 참 대작품을 남긴 것이다. 체일 나쁜 작품이 뭐겠습니까? “아이고, 예수 믿은 인간이 왜 저래?” 이러면 진짜 안 좋은 작품을 남긴 것이다. 그렇지? “아이고, 절대 나는 예수는 안 믿어야지.” 이런 작품을 우리가 남겼다고 하는 건 굉장히 잘못하는 것이다.  
 ▶여기 있다가 이 동네에서 이사 갔죠. 그 남자가 여호와 증거인이다.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거 다 걸어치우고 예수 믿게 되었다. 자기가 말했다. 자기는 자기 마누라보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되었다더라. “어쨌서 그래 보고 생각했습니까? 또 마누라가 이상하게 바뀌면 또 안 믿겠네요?” 내가 이랬다. “아니다. 저 더러운 성격이 바뀐 것을 보면 다시 간다고 하더라도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. 예수 믿어야 되겠다.” 이름 말하면 아실 것이다. 그런데 그 분이 성격이 더럽다기보다 제가 볼 때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분이다. 어쨌거나 나를 쳐다보고 내 산업을 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작품은 없다.
  - 2) 창46:1-34,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(애굽 고센 땅에 정착한 70명의 사람들)  
 ▶자,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게 된다. 그래서 고센 땅을 차지하게 된다. 여기에는 잠시로 보이지만 굉장한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는 것이다. 이 속에서 고센 땅에 하나님의 증거들이 많이 나왔다. 요셉이 잘못된 게 하나 있다면 이때 성전을 지어야 한다. 언약이 설명 되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. 그래서 힘이 막

강할 때 가능한데 생각을 못했던 것이다. 요셉은 하나만 생각한 것이다. 우리는 고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만 한 것이다.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죠. 맞죠.  
 3) 창49:22-26, 대상5:2, 야곱의 요셉에 대한 유언과 축복(장자의 명분을 받은 요셉)  
 ▶요셉이 유언 할 때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오죠. 빌 유언합니까? 가나안 땅으로 가게 자기 유골을 가지고 가라고 유언을 했다. 그 말은 가나안 땅 간다는 것을 벌써 알고 있었던 것이다. 언약의 땅으로, 그게 다 나중에 성취가 되어졌죠.

**◆결론→ 내가 남길 인생 작품(3서밋)**

- ▶자,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언약 속에만 있는데도 저렇게 된다. 그러면 진짜로 남길 작품은 됩니까?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가능하다.
- 1) 영적 서밋→ 영적 대통령, 영적 사령관  
 ▶영적 서밋이다. 서밋은 대통령보고 하는 말이다. 여러분은 영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다.
  - 2) 기능 서밋→ 오직, 유일성, 재창조의 증인  
 ▶그러면 완전히 기능 서밋이 된다. 기능 서밋은 뭘 말합니까? 오직, 유일성, 재창조가 나온다. 이러면 된다. 여러분 직업이 뭐든지 산업이 뭐든지 오직, 유일성, 재창조 나와야 된다. 나올 것이다. 영적 서밋 가버리면요.
  - 3) 문화 서밋→ 복음 문화의 주역  
 ▶그래서 문화 서밋이 되는 것이다. 이것 가지고 복음 운동하기 때문에 문화 서밋이 된다.  
 ▶이까지가 여러분이 가야 되는 여정이다. 이 여정이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다. 확실하다.  
 ▶다른 생각을 안 하면 더 빨리 응답 온다. 사람 말 존중하지만 듣지 말고 이 언약만 잡으면 더 빨리 온다. 틀린 말이라도 사람 말은 존중하면 된다. 그렇지? 저 사람이 틀린 말을 했는데도 중심은 그게 아니잖아요? 그렇지? 틀린 말을 한 것은 사실을 잘못 본 것이지, 그 사람 중심은 잘하자고 하는 얘기란 말이다. 그렇지? 여러분 보고 막 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뭘 요구하는 것이거든요? 그렇지? 그걸 존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야 된다.  
 ▶그래서 꼭 기억해야 된다. 여러분이 이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란 것을 빨리 확인해야 된다.  
 그러면 딱 맞아질 것이다. 딱 맞아지는 것을 보고 24라고 한다. “24, 우리가 24시간 뭘 하자.” 이 말이 아니잖아요? 내하고 딱 맞아지면 그게 24다. 편의점이 왜 편리합니까? 24라서 편의하잖아요? 그런데 24가 왜 편리합니까? 내가 언제든지 가면 되잖아요? 그래서 편한 것이다. 그런데 내가 이 축복이 나하고 딱 맞단 말이다. 그게 24다. 올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. 기도하겠다.

**(기도)**

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오늘도 우리 중직자들을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당연한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게 하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

(The end)

<b>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인터넷총국</b> <a href="http://data.rutc.com">http://data.rutc.com</a>
총 국 장: 김성호 목사 (☎010-3505-5684) 실무국장: 차동호 목사 (☎010-5375-9383 ☞3759383@hanmail.net) 후원계좌: (국민은행) 856701-04-233309 (사)세계복음화전도협회 인터넷총국